



책자형선거공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장선거

더불어
민주당
울산광역시장 후보

**오직
시민만 보고
일하겠습니다**

1 다부지게 **착착**
김상욱



다부지게 착착! 1 김상욱

울산의 운명을 가를 골든 타임! 김상욱이 답을 찾겠습니다

울산은 지금, 멈춰 있습니다.

일은 있지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산업은 있지만,
미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있지만,
젊음이 없습니다.



1

고립과 소외의 위기

부·울·경 통합 배제로 인구와 재정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초광역 협력으로 울산의 주권을 지키겠습니다.

2

AI 양극화의 위기

기술의 이익이 자본에만 쏠리면 서민의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AI 성과를 시민 모두의 혜택으로 바꿉니다.

3

기득권 카르텔로 인한 위기

낡은 구조가 청년과 시민의 복지를 가로막습니다. 기득권 타파로 공정한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4

에너지 패권 상실의 위기

주도권을 뺏기면 울산의 미래 먹거리도 사라집니다. 3년 내 골든타임을 사수해 에너지 허브를 선점하겠습니다.

울산 극복
4대 위기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임하는

민주포치 김상욱의 마음

'기득권과 권력자가 아닌 시민이 주인 되는 세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오직 '시민의 이익'에 집중하는
깨끗하고 유능한 행정
민주. 시민 주인. 우리가 바라는 민주 울산입니다.

방향과 기준. 오직 '민주(시민 주인)'에 머물겠습니다.
정치인이 주인되어 시민을 나누는 진영논리를 거부합니다.
오직 시민이 주인입니다.
정치와 행정, 시민 위한 도구와 기능일 뿐입니다.
보수의 기능과 진보의 기능을 통합하여,
오직 시민 이익 위해 실용적으로 쓰겠습니다.
'통합과 실용'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받들고, 시민 이익에 충실하겠습니다.

오직, 민주(시민주인)에 머물며,
오직, 시민 이익에 충실하겠다는 '대의'
그 대의에서 어긋남 없이
마음과 행동이 오롯이 그 자리에 머물겠다는 '공심'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늘 되돌아보며,
오직 대의와 공심에 진정을 다하겠다는 '진심'
대의와 공심과 진심, 공직의 기본입니다.

그동안 우리 선거의 모습 어땠습니까?
삼류 아침 드라마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와 네거티브.
엄청난 돈을 쓰며 세 과시에 집중하는 힘자랑.
시끄럽게 출주하고 떠들 뿐,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불통.
그 속에서 시민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되어버린 역설.
그동안의 우리 선거 그렇지 않았나요?
시민은 힘자랑의 대상이 아닌, 모셔야 할 주인입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선거.
선거운동부터 바꾸겠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 선거, 부정부패와 기득권의 시작입니다.
보전 받은 선거비, 결국 국민의 혈세입니다.
선거운동부터 '시민 주인 정신'으로 바꾸겠습니다.
돈 없고 힘없고 뒷배 없어도
의지 있고 능력 있고 공심 있으면
시민의 공복으로 또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해내겠습니다.
전국 광역단체장 중 가장 적은 선거비로 승리하는 기적.
비겁한 방법 없이, 오직 시민을 모시는 마음,
정당한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실행으로 승리하는 품위.
시민의 바람을 정책에 담아내는 정성.
울산이 대한민국 민주선거의 모범이 되도록
울산의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선거는 우리 공동체의 '시민 공론의 장'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네거티브 선거. 시민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는
반시민적 반민주적 민주질서 파괴행위입니다.
우리는 정책선거로 네거티브를 배격하겠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거대 캠프.
과연 시민들의 진짜 마음일까요?
고립되고 왜곡된 그들만의 성은 아닐까요?
거대 캠프 조직선거,
자리 약속 이권 약속이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득권의 시작이자 그들만의 리그,
불공정의 시작입니다.
시민의 이익이 아니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기득권.
저는 거부합니다.
거대한 조직.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만 양산하는 시도.
저는 거부합니다.

시민은 세 과시 힘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더 듣고 더 모셔야 할 주인입니다.

최소화된 조직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선거,
자리 약속 이권 약속 없는 클린 선거,
다름에서 배움을 얻는 품이 큰 선거.
울산에서 시작합니다.
김상욱이 시작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꼭 승리하겠습니다.



선거는 연예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할 '머슴'을 뽑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인사하고 출만 출다면,
그렇게 얼굴만 알린 사람이라면 일할 수 있을까요?

시민이 주인인 세상,
시민들 속으로 더 들어가
직접 현장에서 더 듣고 함께 더 고민하겠습니다.
시끄러운 확성기로 나를 알리고 떠들기보다,
시민들의 일상 속을 두 발로 누비며
더 손잡고 더 많이 울고 웃겠습니다.
광고하는 선거가 아니라
'듣고 소통하며 받드는 선거'로 임하겠습니다.

옳은 일이지만 두려움에 하지 못했던 시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해내겠습니다.
품위 있고 현명하며 용기 있는 위대한 울산시민.
주권자 우리 울산시민들이 계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을 믿고 시민만 바라보며 옳은 길 걸어가
끝내 '시민 주인 참세상' 해내겠습니다.

비겁하고 쉽고 자신에게만 이익되는 길이 아니라,
어렵고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시민에게 이익되는 길을 걷겠습니다.
욕먹고 다치더라도 옳은 길이라면 감내하겠습니다.
오직 시민만 보고, 시민만 믿고,
두 눈 바로 뜨고 한결로 중심 잡겠습니다.

참세상 여는 걸음,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손잡아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이번이 아니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통산업의 자부심 울산, 이제...
대한민국 민주정신의 자부심 울산을 더하겠습니다.
선거부터 민주(시민 주인)답게!
함께해 주십시오.

2026. 5. 13.
김상욱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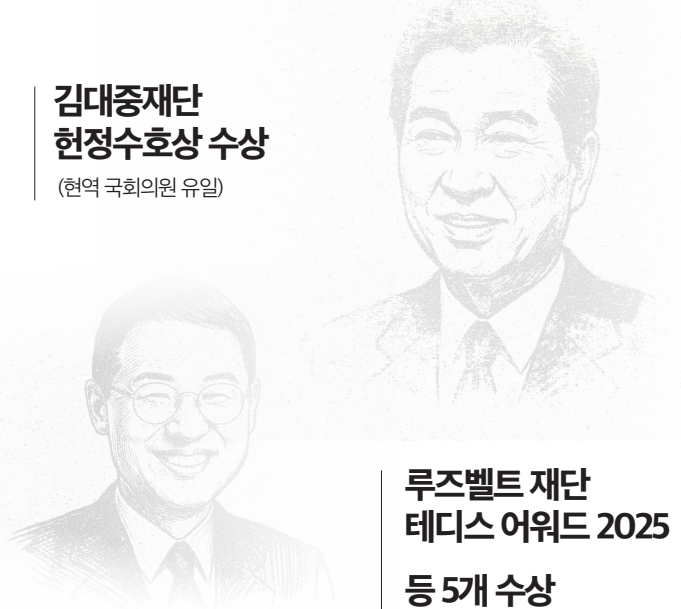
김상욱이 증명했습니다

700일의 진심

검증된 국회의원 700일의 성과,
울산광역시장의 실력으로 이어집니다.

정의를 향한 타협 없는 고집과
오직 시민만을 바라본 진심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편 가르기를 넘어 **화합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의 가치를 울산의 자부심으로 세우고,
검증된 실력으로 울산의 더 큰 도약을 증명하겠습니다.

김대중재단
현정수호상 수상
(현역 국회의원 유일)



루즈벨트 재단
테디스 어워드 2025
등 5개 수상





기본을 지켜야 울산이 삽니다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10가지 약속

기본부터 착착

1 유능한 시정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기본을 다시 바로 세워, 청렴하고 효율적이며 유능한 시정을 만들겠습니다.

2 열린 소통

시민이 주인되는 투명한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3 혈세 수호

혈세는 눈 먼 돈이 아닌 가장 귀하고 무서운 돈입니다

전시행정을 혁파하고, 일감 몰아주기·불공정 입찰·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타당성을, 지속사업은 자생력을 챙겨가겠습니다.

4 민생 우선

드러나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기본 삶입니다

안전, 복지, 교육, 문화, 체육, 보육, 돌봄 등 시민의 기본 삶을 지키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겠습니다.

5 산업 혁신

울산 산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AX대전환을 선도하고, 부울경 통합 경제권역을 준비하며,
동북아 에너지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6 청년 기회

청년이 울산의 미래입니다

창업 · 교육 · 고용 · 정주 등 청년의 실질적 필요에 맞는 정책으로 청년의 도전과 기회를 열어하겠습니다.

7 시니어 행복

시니어의 행복은 울산의 행복이 됩니다

시니어에 맞는 일자리, 의료, 체육과 문화, 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켜 어르신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8 노동 존중

산업AX시대 노동의 권리는 더욱 귀하게 빛나야 합니다

정당한 처우가 보장된 안정되고 비전있는 일터를 만들어 대한민국 산업 수도인 울산의 자부심을 지켜내겠습니다.

9 교통 복지

편리하고 예측 가능한 교통 시대를 열겠습니다

도시의 혈관과 같은 대중교통, 더 이상 정상화를 미룰 수 없습니다. 교통공사설립으로 시내버스 공영제를 실시하고,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으로 예측 가능한 이동을 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10 평등 사회

단 한 사람도 소외 없는 따뜻한 울산을 세웁니다

여성 · 청년 · 외지인 · 장애인 · 다문화 · 경제적 약자 등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히 제도적 보완을 더하겠습니다.

미래를 대비해야 울산이 발전합니다

울산의 내일을 위한 5대 핵심 공약



상세 공약 보기

예산을 아끼고, 불필요 지출은 확 줄여서,
소중한 혈세로 시민의 기본 삶을 지키고,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겠습니다.

1

**시민의
이동권을
지키겠습니다.**

- 1 버스 노선을 즉시 확충하고, 공영제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 2 문수로 우회도로, 제2명촌교, 울산외곽순환도로, 송정지하차도, 광역철도 사업 등 사업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 3 트램 2호선 조기 착공하고, 트램 1호선 재검토하여 입체화(지하화 등) 하겠습니다.
- 4 저상버스·자율주행버스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 5 공용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 6 산업단지 출퇴근 광역 교통망을 개선하겠습니다.
- 7 태화강역의 KTX 이용성을 높이고, 복합환승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

**노동이
존중 받는
산업AX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 1 부울경을 대표할 수 있는 산업AX실증연구단지를 준비하겠습니다.
- 2 유니스트와 울산대·울산과학대를 연계하여 산업AX연구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 3 AX실증을 위해 과감히 규제를 완화한 특구를 준비하겠습니다.
- 4 울산테크노파크의 사업과 기능에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AX전환 지원을 더하겠습니다.
- 5 울산형 직업전환 보장제, 청년AX아카데미, 숙련노동자 이동행사업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 6 노사민정 협의체와 울산발전연구원의 인력과 기능을 강화하여, 변화에 대한 대응을 높ی겠습니다.



3

**동북아
에너지 물류
허브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 1 울산의 석유·LNG·나프타 등 비축기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 2 울산에 더 많은 에너지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 3 국내 기업 참여가 보장된 단계적 공공개발 방식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4 중앙정부와 함께 자원 수입선 다변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 5 울산항 액화화물 처리 역량을 시 기반으로 강화,
시설 증설 하겠습니다.

4

**시민의
기본 삶을
지키겠습니다.**

- 1 ‘울산형 보육 모델’을 개발하고 보육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2 ‘안전한 물공급’과 반구대암각화를 지키기 위한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3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북구, 서울주 등 공공의료원 설립)
- 4 ‘통합 돌봄’시행에 맞춰 **울산형 어르신 돌봄 체계**를
개발하겠습니다.
- 5 교육청과 연계하여 **방과 후 아이 돌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 6 시민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인프라**(물적, 인적)를
확대하겠습니다.

5

**도시개발의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 1 북구진장명촌지구, B04재개발지구, 웅촌택지개발지구,
울산역 KTX 역세권 개발사업 등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얽힌 문제들을 풀어내겠습니다.
- 2 주거 단지·교통·상권·교육 등 연계하여
‘생태계’관점에서 도시개발을 관리하겠습니다.
- 3 재정과 시설이 부족한 기초단체에 더 많은 시의 관심과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 4 옥동군부대부지 및 울주군청사부지를 **미래산업에 특화된
청년창업생태계** 안착 및 공공인프라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발로 뛰며 완성하는 울산 공감 정책 지도

The grid contains 100 small video thumbnails, each featuring a person in a blue uniform (likely a city official or volunteer) speaking. The thumbnails are arranged in a 10x10 grid. The central part of the grid is overlaid with large white text on a blue background.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로 울산의 내일을 그리겠습니다.

The thumbnails cover a wide range of topics related to Ulsan's development and citizen concerns, including:

- Infrastructure and Urban Planning:** Discussions on roads, public spaces, and urban renewal.
- Environment and Nature:** Topics related to green spaces, water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Education and Culture:** Focus on schools, libraries, and cultural activities.
- Health and Safety:** Concerns about public health, safety, and emergency services.
- Community and Social Issues:** Topics related to community support, social welfare, and local businesses.

배낭 하나 둘러메고 울산은 골목골목을 누립니다.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울산에 꼭 필요한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 울산 공감 정책 지도의 상세 내용은 '김상옥TV'에서 확인해 주세요.



김상옥TV 바로가기





지금 입은 옷은 계엄해제표결 때
입었던 옷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들께 계엄해제를 간절히 바랐던 그때
그 마음으로 탄핵찬성에 나서주실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이대로는 보수가 절멸합니다.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입니다.

탄핵찬성으로 국민께 진심
으로 반성하고,
으로 다시 처음

**시민의 한 표가
울산의 미래를 바꿉니다!** 

5월 29(금)-30일(토)
사전투표

신분증만 있으면 유권자 누구나
가까운 읍, 면, 동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합니다.

6월 3일(수)
본 선거

신분증 지참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청대 같이 곧은 사내
그런 사내 어디 쉬운가
남의 정무내만 빌빌 쫓아다니는 무리 속에서
억척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바른 일에 담대하고, 사소한 일에 너그러운
그런 사내 어디 쉬운가

동아 앉아 남의 허물만 뜯고
호신술만 급급한 무리 속에서
바른말만 대지로는
강직하고 늠름하고 눈이 이글아글 타는
그런 사내가 어디 쉬운가

대낮에 초롱들고 서울 거리를 뒤져본들
소심하고, 움츠러하고, 비겁하고, 무례한
제 실속만 채우는 무리 속에서

청대 같이 곧은 사내.
그런 사내 어디 쉬운가

그제 누구냐고
그대 김상욱

청대 같이 곧은 사내
동짓날 밤하늘 별 같은 사내

김상욱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이 보내준 시

오직 시민만 보고 일하겠습니다

1 다부지게 **착착**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후보 울산시 남구 삼산로 65, 4층 ☎ 052-275-0410 ✉ kimsangwook544@gmail.com

국군장병 여러분!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든든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상욱TV
 kimsangwook80
 gimsangug8
 Minju_ttocchi